‘내 돈’에서 ‘우리 복’으로

현불논단



성제 박준석 정사
위덕대 불교문화학과 교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화제다.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고, “세금은 우리가 냈는데 생색은 정부가 낸다”는 불만도 있다. 세금은 본질적으로 강제된 보시(報施)다. 종교의 보시는 자발적이지만 세금은 의무적이다. 그러나 자발이든 강제든 결국 어려운 이를 돕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쓰인다. 보살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내가 사회 속에서 지은 공덕의 회향’이다.

불교에서는 보시를 단순히 물질의 이동이 아니라 마음의 회향으로 본다. 내가 낸 세금이든 누군가의 기부금이든, 그것이 사람의 삶을 밝히고 인연을 이어 주며 울컥하는 감동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수행의 방편이다. 돈이 어디서 왔는가보다, 그것으로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

소비쿠폰은 사용하면 사라진다. 그러나 그때의 웃음, 잡은 손의 온기, 밥상 위에 흐르던 따뜻한 공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 그러니 불자라면 받았다면 감사히 회향하고, 받지 못했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그 인연을 응원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연 따라 오고, 그 인연이 복의 씨앗이 되기 때문이다.

불교에는 ‘무주상보시’라는 말이 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물건도 실체로 집착하지 않는 보시다. 반대로 ‘내가 준 것’을 내세우고, ‘내 돈으로 저 사람이 혜택을 받았다’고 분노하는 것은 ‘집착보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각자가 사회 속에 보시해 온 업의 회향일 수 있다. 복은 내 뜻대로 오지 않고, 인연 따라 오는 법이다.

보살의 관점에서 본 ‘소비쿠폰’
사회 속에서 지은 공덕의 회향
수행 시험하는 현세판 보시 도량

우리가 낸 세금으로 생색은 정부가 낸다? 맞다. 정부의 생색도 업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일상에서 이미 수없이 생색을 내며 살고 있지 않은가. 밥을 사 주고 “내가 샀다”고 하고, 도움을 주고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하며, 자녀에게도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고 반문한다. 남의 생색은 지적하면서 내 생색은 돌아보지 않는다. 이것이 중생의 미세한 미혹이요, 무명이다.

혹시 ‘나는 못 받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은 분명하다. 복은 심은 땅에 맺힌다. 지금 받지 못해도 그 복은 언젠가 돌아온다. 이번 생이 아니면 다음 생에, 아니면 가족에게, 아니면 마음의 평안으로 온다. 눈앞의 혜택이 있어야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미 흐르고 있는 인연 속에서 내 공덕도 함께 흘러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돈은 그저 도구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쥔 마음이다. 쿠폰을 손에 쥐고 “이게 무슨 꼼수냐” 하면 그 마음은 괴로움이 된다. 반대로 “이걸로 인연을 덜어 내자” 하면 그 마음은 이미 공덕이 된다. 소비쿠폰은 정부의 정책이면서, 우리의 수행을 시험하는 현세판 보시 도량이다.

한 장의 쿠폰을 불보살의 마음으로 쓰는 것이 생활 속 보살행이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이 혜택을 통해 누군가의 미소를 만들고, 그것이 복전(福田)이 되어 나와 인연 맺은 중생에게 회향되었으면 한다. 이 시대를 사는 불자로서, 복 짓는 마음으로 회향하는 삶이 되기를 서원한다.

1초 뉴스, 사라진 성찰

세간과 출세간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디지털 기술이 일상을 재편하면서 뉴스 소비 양상은 최근 몇 년 사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아침 신문과 저녁 TV 뉴스가 하루 정보의 흐름을 규정했지만, 이제 뉴스는 하루 24시간, 손바닥 위에서 실시간으로 공급된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SNS의 30초 속보 영상을 확인하고, 점심시간에는 포털 메인 속보를 클릭해 제목 몇 줄로 이슈를 파악하며, 퇴근길에는 유튜브 1분 브리핑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기다림은 사라지고 뉴스 소비는 즉시성의 속도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분과 초 단위로 쪼개진 시간을 살아가는 ‘분초사회’라는 압축된 시간 감각이 자리 잡고 있다.

분초사회에서 뉴스는 짧고 강렬해야 선택받는다. 스크롤 몇 번, 손가락 두세 번의 터치면 하루의 주요 이슈를 소화할 수 있다. 여기에 맞춤형 알고리즘이 결합하여 사용자가 관심 가질 만한 뉴스만을 선별적으로 노출한다. 그 결과 뉴스는 깊이 있는 분석보다 즉각적 이해와 반응을 유도하는 정보 조각으로 변모하고, 공론장의 맥락은 점점 약화된다.

이 흐름은 소비경제에서 경험경제로의 전환과도 맞물린다. 경험경제는 상품이나 서비스보다 경험 자체를 가치의 중심에 둔다. 뉴스 역시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참여·공유·감정 몰입이 결합된 경험으로 재구성된다. 실시간 댓글, 라이브 방송,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은 독자를 정보의 수용자이자 생산자로 만든다. 그러나 강렬한 체험성은 복잡한 사안을 단순화하거나 선정적으로 다루는 경향을 강화하며, 정보의 정확성과 맥락을 희생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디지털 기술로 뉴스 소비 양상 변화
‘분초사회’서 정보 정확성·맥락 희생
‘깊이’ 회복으로 비판적 성찰 실천

여기에 주목경제의 경쟁 논리가 더해지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수많은 뉴스와 콘텐츠가 시선을 붙잡기 위해 자극적 제목, 몰입형 영상, 실시간 푸시 알림을 총동원한다. 클릭 수와 체류 시간이 광고 수익과 직결되기에, 언론사와 플랫폼은 점점 더 강렬하고 감각적인 뉴스 경험을 설계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도 화제성이 떨어지면 외면 받고, 대신 갈등·스캔들·극단적 사건이 뉴스 공간을 과도하게 점유한다. 공론장은 흥분과 분노를 자극하는 콘텐츠에 기울고, 심층 분석과 비판적 성찰이 필요한 이슈는 배제되는 구조적 왜곡이 심화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언론과 플랫폼은 속도와 흥미를 확보하면서도 질적 깊이를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알고리즘 추천 속에 심층 보도와 맥락 제공 콘텐츠를 배치하고, 클릭 중심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신뢰성 있는 보도에 보상하는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이용자는 속도와 자극에만 휩쓸리지 않고 다양한 출처와 관점을 탐색하며, 짧은 속보 뒤에 숨은 배경과 함의를 살피는 뉴스 리터러시를 실천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 분초 단위의 속보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관찰하는 정념(正念)의 태도가 필요하다. 눈앞의 뉴스에만 반응하기보다, 그 이면의 인과와 맥락을 비추어 보는 성찰이야말로 혼탁한 정보 환경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로운 뉴스 소비 방식이다.

社 說

이주노동자 죽음, 자비로 응답해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7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름 대신 국적과 사고 원인만 남은 이 비극은 우리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스님)는 8월 1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내국인 노동자의 죽음과 비교해도 너무나 차별적인 현실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하청·재하청 구조 속에서 생계를 이어 가는 이주노동자들의 존엄은 죽음 앞에서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노위는 그간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열악한 환경에 처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긴급조치를 요청하고, 산재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또 이 땅에서 일하다 숨진 이주노동자의 넋을 위로하는 49재를 봉행하는 등 실질적인 연대 활동을 펼쳐왔다. ‘모든 존재의 평등한 존엄’을 실천하는 귀한 발걸음이다.

그러나 종교계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지만, 이주노동자를 값싼 ‘노동력’으로만 보는 시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악몽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과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불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보살행이다. 사노위의 호소처럼 산업재해 없는 일터,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불자 모두가 자비심으로 응답해야 할 때다.

대학생 눈높이 맞춘 전법교재 기대

최근 몇 년 사이 젊은 세대의 불교에 대한 호감이 높아지면서 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입문서와 교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간 여러 종단과 단체가 다양한 전법교재를 출간했지만 ‘공급자’의 관점에서 제작돼 ‘수요자’의 필요와 정보 수용 방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가 ‘대학생 전법교재 편찬위원회’를 출범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8월 11일 열린 출범 기념 워크숍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불자들은 불교에서 ‘정신건강 개선’을 가장 크게 기대했고 ‘윤리적 가치 실현’이 뒤를 이었다. 이는 전통적 교리 교육보다 실생활과 연결되는 불교를 원한다는 분명한 신호다.

또 부처님 생애 중 ‘깨달음’과 ‘마지막 순간’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를 웹툰이나 애니메이션처럼 서사적으로 풀어주길 바란다는 응답이 많았다는 점은, 단편적인 지식 전달보다 스토리텔링과 체험을 통해 배우는 방식을 선호하는 세대의 특성을 잘 보여 준다.

새로운 전법교재는 학생들을 자연스럽게 불교로 이끄는 ‘방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청년 야사에게 차근차근 설하셨던 것처럼, 초심자의 호기심과 관심을 끌어올릴 맞춤형 서사가 필요하다.

인생의 방향과 세계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르게 뿌리내린다면 평생 삶의 지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청년 세대를 불자로 이끌 전법교재 출간을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69년(2025) 8월 20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8월 20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8월 20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9년(2025) 8월 20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